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1. 4. 30. (금)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장순재, 사무관 나귀용, 전문위원 신승환 • ☎ (044) 201-3877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인 「서울-양평 고속도로」 예타 통과

-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으로, 이르면 '25년 착공 -

-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-양평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조사(이하 '예타')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.
- 서울-양평 고속도로는 4월 30일(금)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(기획재정부 주관)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(B/C 0.82, AHP* 0.508)한 것으로 의결되었다.

*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.5 이상인 경우, 타당성 확보한 것으로 판단

< 사업개요 >

- (위치)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(오륜사거리) ~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
- (규모/총사업비) 27.0km & 4차로 / 1조 7,695억 (예타 기준)

- 국토교통부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 및 광주시 북부,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서울-양평 노선을 반영('17.1) 하였으며,
- '18.12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(32천호)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되면서, 서울-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.
-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'19.4월 예타에 착수한 이후, 경제성 분석(B/C), 정책성 분석(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) 등에 대한 종합평가('21.4.9)를 거쳐 예타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.

- 서울-양평 고속도로 추진시, 평일에는 출·퇴근 차량, 주말에는 관광수요 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,
 - 수도권 제1,2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.
- 또한, 수도권 지역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 북부 및 양평군의 경우, 보건의료·문화·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 - 한편, 양평군은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개선되면,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.
- 아울러, 서울-양평 고속도로는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또는 경기 남부지역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로, 신도시 교통망의 핵심축을 담당하게 된다.
-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혼잡 수준, 교산 신도시 입주시기 등을 감안할 때,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,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르면 '25년에 착공할 것”이라면서,
 - “신속히 추진하면서도, 단계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해 주민, 지자체, 관계기관 요구사항도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나귀용 사무관(☎ 044-201-38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